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4.02

KOSDAQ | 자본재

태광 (023160)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주가 밸류업 기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2024~2026년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세부목표는 1) PBR 1.0배, 2) 주주환원을 30% 유지, 3) 주당 현금배당 200원 이상 목표 제시. 2025년 기업가치제고 이행 결과로 1)PBR 1.4배 도달, 2)2024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주환원을 30% 달성, 3) 현금배당 535원(중간배당 285원, 결산배당 250원)으로 목표대비 2.6배 이상 달성하며 기업가치 제고 목표 100% 이행
- 밸류업 목표 달성, 중동과 미국이 동반 견인하는 실적 모멘텀으로 2024년말 밸류업 계획 발표 이후 주가는 113% 급등하며, 동기간 코스닥지수 수익률(56%)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주가 리레이팅(Re-rating)에 성공
- 2027~2029년 3개년 밸류업 추가 계획 공시. 2026년 자사주 매입/소각 100억 원 실시, 주주환원을 45%로 기존대비 15%p 상향하며 적극적인 선진국형 주주환원 추진

체크포인트

- 투자포인트: 1) 이란 전쟁 이후 중동발 배관용 피팅 특수 기대, 2)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달성율은 100%, 3) 2027~2029 신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주주환원 목표 확대
- 2026년 역대 최대치 매출액 경신 전망, 영업이익은 2023년 최대치 이후 재차 500억 원대 안착 예상
- 주가는 PBR 1.4배로 리레이팅, 2026년 역대 최대치 매출액 경신, 북미 수출비중 확대와 자회사 턴어라운드, 2027~2029년 신규 밸류업 발표로 주주환원책 강화, 중동전쟁 이후 재건 수요 기대감은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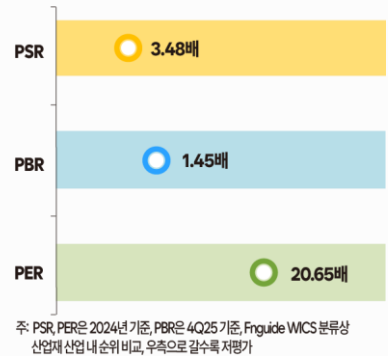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이란 전쟁 이후 중동발 배관용 피팅 특수 기대

이란-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손실규모는 최소 250억 달러 규모로 추산, 향후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한 대규모 파이프용 피팅 수요 촉발 전망, 중동은 동사 수출의 절반 이상 차지, 중동 에너지 국영기업들은 대부분 동사의 주요 고객사로 장기적인 공급 레퍼런스 보유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달성율은 100%

2025년 기업가치제고 목표 달성: 1) PBR 1.4배로 상승, 2) 주주환원율 30% 달성, 3) 현금배당 535원(200원 상회)

2027~2029 신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주주환원 목표 확대

동사는 2026년 중 자사주 매입/소각 100억 원 실시 계획과 더불어 2027~2029 기업가치제고 신규 목표로 주주환원율을 45%로 상향하며 주주환원 목표 확대 결정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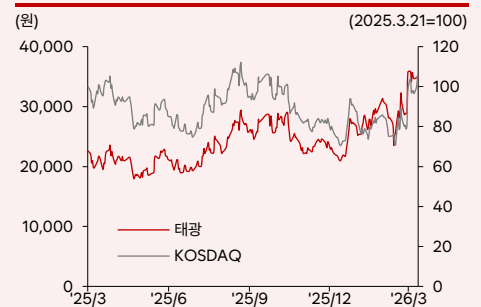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2,497	3,121	2,668	2,970	3,304
YoY(%)	34.9	25.0	-14.5	11.3	11.3
영업이익(억원)	454	577	399	387	538
OP 마진(%)	18.2	18.5	14.9	13.0	16.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58	551	449	639	478
EPS(원)	1,350	2,078	1,695	2,410	1,844
YoY(%)	135.1	54.0	-18.5	42.2	-23.5
PER(배)	11.9	7.1	10.4	9.0	19.0
PSR(배)	1.7	1.3	1.8	1.9	2.7
EV/EBITDA(배)	6.7	4.9	7.9	8.6	11.3
PBR(배)	0.9	0.7	0.8	0.9	1.4
ROE(%)	7.8	10.9	8.2	10.7	7.4
배당수익률(%)	1.1	1.2	1.4	2.5	1.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3/31)	35,000원
52주 최고가	35,850원
52주 최저가	18,000원
KOSDAQ (3/31)	1,052.39p
자본금	133억원
시가총액	9,05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6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30억원
외국인지분율	19.35%
주요주주	대신인태내셔널 외 10 인 46.75%
	국민연금공단 6.8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4.3	357	695
상대주가	409	85	8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식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회사연혁

1965년 설립된 산업용 파이프 피팅 국내 1위기업

태광은 1965년 설립된 국내 1위 산업용 파이프 피팅 제조업체로, 조선·플랜트·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배관 연결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1982년 태광벤드공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199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2001년 현재의 사명인 태광으로 변경하였다.

동사는 부산시 진구 양정동에 회사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1973년 사상공단 공장, 1985년 신평·장림공단, 2001년 녹산 공단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2010년과 2012년 화전공장(2·3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하며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현재 녹산 1공장과 화전 공장을 중심으로 연간 약 18.9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은 Elbow, Tee, Reducer 등 산업용 피팅 제품이다.

한편, 동사는 종속회사 편입을 통해 기존 피팅 사업 외 신규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하였다. 에이치와이티씨를 통해 2차전지 및 반도체용 초정밀 부품 사업을, 파운드리서울을 통해 점포임대 및 전시기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2021년 1월 에이치와이티씨 지분 50.81%를 취득하며 종속회사로 편입하였다. 에이치와이티씨는 2000년 설립된 초정밀 가공 기업으로, 반도체·LED 금형 및 2차전지 부품을 생산하며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파운드리서울 지분 91.67%를 취득한 이후, 2024년 6월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완전 자회사(지분율 100.0%)로 편입하였다.

태광 연혁

설립기(1965 - 1990)	준비기(1991 - 1999)	성장기(2000 - 2009)	도약기(2010 - 2020)	확대기(2021 ~)
1965.05 회사창립(부산시 진구양정동) 1973.07 사상공단 공장으로 신축이전 1975.02 태광벤드 공업사로 상호변경 1981.03 KR 인증공장 1997.05 BV 인증공장 1985.08 A산업, 장림공단으로 신축이전	1991.07 공업진흥청 품질관리 선도기업 선정 1992.09 미국기계기사협회(ASME) 원자력 인증(N-2870) 1994.03 코스닥 등록 (023160 KS EQUITY) 1997.06 한국전력공사(KEPIC) 인증(MN-079) 1998.11 APIMONOGRAM LICENSE 취득 (GA-O481)	2000.10 노동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2000.11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대상 수상 2001.01 (주)태광으로 상호변경 2001.05 녹산공단(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확장이전 2003.03 대표이사 윤성덕 취임 2007.11 포브스 아시아 태평양지역 200대 베스트 중소기업 선정 2008.12 플랜트용 파이프류 세계일류상품 선정 (지식경제부) 한국IR협의회 우수상 수상 2009.03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공로패 수상 2009.06 OHSAS 18001 인증취득 제 4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기업선정	2010.05 화전1공장(부산 강서구 화전산단 2로 3국) 준공 2012.03 윤성덕 대표이사 부산상공회의소 위원 취임 2012.05 화전2공장(부산 강서구 화전산단 2로 3국) 준공 2014.01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2015.04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선정 2018.04 코스닥시장 장기공시 우수법인(한국거래소)	2021.01 종속회사(주)에이치와이티씨 주식취득(지분율 45.8%) 2021.03 종속회사 파운드리서울(주) 주식취득(지분율 91.67%) 2024.06 파운드리서울(주) 지분 추가취득(지분율 100%) 2024.12 기업가치제고 밸류업 공시 2025.03 25년도 코스닥 시장 공시우수법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태광 전방산업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 및 종속회사

2025년 연간 기준 전체 매출액은 2,970억 원으로, 매출 비중은 플랜트 기자재(태광) 89.4%, 2차전지 기자재(HYTC) 10.1%, 부동산 임대(파운드 리서울) 0.4%를 기록하였다.

플랜트 기자재: 태광

플랜트 기자재 사업부문은 별도기준으로 태광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산업용 피팅 제품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되고 있다. 2025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2,656억 원, 영업이익은 432억 원, 당기순이익은 707억 원을 기록하였다.

플랜트 기자재 제품으로는

Elbow, Tee, Reducer, Cap 등

플랜트용 피팅류

피팅(Fitting)은 유체 및 기체의 이송을 위한 배관 시스템에서 파이프를 연결·전환하는 핵심 부품으로, 산업 플랜트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당사는 석유화학·정유·가스 플랜트를 비롯해 발전(화력·원자력), 담수, 조선 및 해양구조물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ELBOW, TEE, REDUCER, CAP 등으로, 각각 방향 전환, 분기, 구경 변경, 단부 마감 기능을 수행한다.

제품은 탄소강 Pipe 및 Plate를 가공하여 생산되며,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는 STS 및 Alloy 소재 등도 사용된다. 2025년 기준 소재별 매출 비중은 Carbon 56.9%, STS 36.1%, Alloy 7.0%이며, STS 소재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요산업별로는 석유화학 및 정유가스가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발전 및 담수(9.8%), 조선 및 해양(2.5%), 기타(51.4%) 등이다. 내수/수출의 별도 매출 비중은 17.5%, 수출 82.5%로 수출 비중이 내수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출하는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동 67.9%, 미국 27.7%, 기타 4.4% 등이다. 중동향 매출 비중은 2020년 30.7%였으나, 2025년 67.9%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동기간 미국 역시 10.9%에서 27.7%로 상승하며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아시아 비중은 동기간 42.2%에서 1.8%까지 하락하며 수출 지역이 대부분 중동과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모습이다.

태광 주요 제품(ELBOW)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태광 주요 제품(TEE)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HYTC는 2차전지 공정 중 극판 조립 공정 장비를 공급

2차전지 기자재: (주)에이치와이티씨

에이치와이티씨(HYTC)는 2차전지 배터리 제조 장비에 적용되는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태광 연결 기준 매출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301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OPM -10.5%), 당기순이익 3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하여 연결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YTC는 2000년 한영정공으로 설립된 이후 반도체, LED 금형 및 2차전지 부품 분야에서 축적된 정밀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는 2차전지 제조 공정 중 화성공정을 제외한 극판 및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2차전지 장비용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극판 공정 장비에 적용되는 PX-SHAFT, KNIFE UNIT, KNIFE-SPACER와 조립 공정용 권심, CUTTER, 초음파 혼, ANVIL, 절연판 금형 등으로 구성된다.

동사는 경기도 군포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폴란드, 중국(난징), 미국, 인도네시아 등 4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해외 공장 증설 및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통한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전시기획: 파운드리서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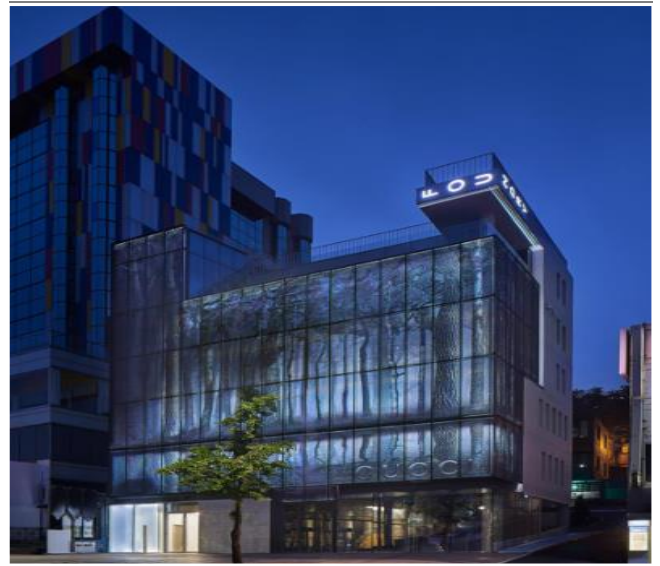
파운드리서울은 투자부동산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24번지에 FOUNDRY 빌딩(대지면적 168평, 연면적 1,025평, 지하4층~지상 6층)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동산 임대매출은 1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HYTC 제품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파운드리서울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주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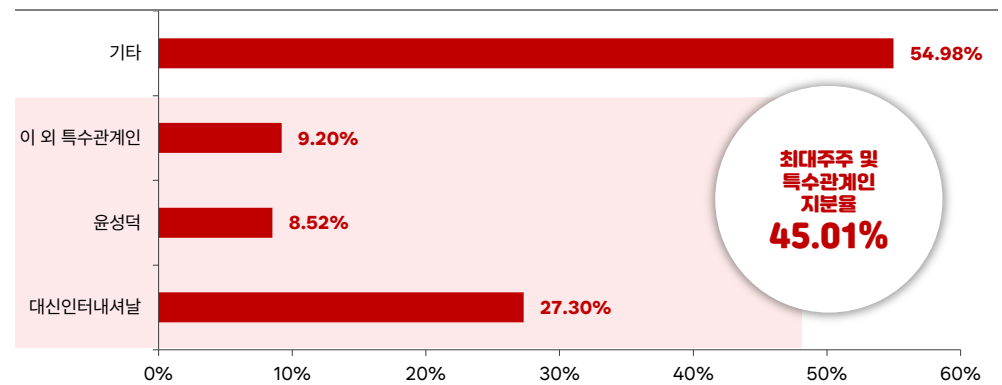
2025년말 기준

최대주주는 대신인터내셔널로,
지분율 27.30% 보유

최대주주는 대신인터내셔널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지분율은 27.30%이다. 대신인터내셔널은 2002년 1월 설립된 비상장사로, 태광의 배관자재, 관이음쇠류의 무역업 및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대신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고 윤종규 태광회장의 3세인 윤원식으로, 2025년말 기준 대신인터내셔널의 지분 49.35%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말 기준 자산은 1,430억 원이며, 매출 69억 원,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하였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총 지분율은 45.01%이며, 5% 이상 주주로는 대신인터내셔널 외에도, 윤종규 회장의 2세인 윤성덕(8.52%)과 대신(5.80%)이 있다.

주주현황(2025.12.31)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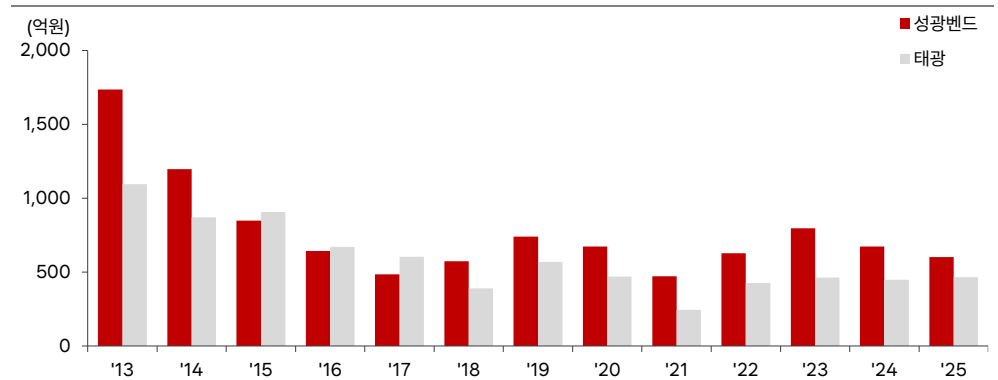
성광벤드와 태광이 양분하는 국내 용접용 피팅 시장

**2025년 내수시장 점유율은
성광벤드 56%, 태광 44% 차지**

국내 용접용 피팅 내수시장은 성광벤드와 태광이 장기간 양분하는 안정적인 과점 구조가 이어져 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98에 육박했던 2013년 양사의 내수 합산 매출액은 2,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이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2021년 내수 합산 매출액은 717억 원까지 감소하였다. 이후로는 2022년부터 지난 해 2025년까지 1,000억 원대 초반으로 회복하긴 했으나, 여전히 과거 피크 대비로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내수시장은 수요 증가가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내수 시장 점유율은 장기적으로 성광벤드와 태광이 60:40 비중을 보여왔으나, 2025년 기준으로는 성광벤드가 56%, 태광이 44%를 차지하였다. 성광벤드의 내수 매출액은 602억 원으로 전년대비 10.5% 감소한 반면, 태광의 내수 매출액(별도 기준)은 465억 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며 시장점유율이 전년 40%에서 44%로 4%p 상승하였다.

국내 용접용 피팅업체 내수 매출액 추이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피팅업체 2사 합산
수출비중은 78.1%로 역대
최고치, 합산 수출액은
3,803억 원으로 2013년 이후
12년래 최대치 기록**

내수시장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사의 수출비중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변모했다. 2013년 내수 호황 당시 양사 합산 수출비중은 59.2%에 그쳤으나, 이후로는 코로나 이전까지 60%대 중반으로 상승했으며, 코로나 이후로는 70% 중반대를 거쳐 지난 해 2025년 양사 합산 수출비중은 78.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업체별로 보면 수출 부문에서는 태광의 수출액이 2,191억 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으며, 성광벤드의 수출액은 1,613억 원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하였다. 양사 합산 수출액은 3,8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유가 강세로 호황을 보였던 2013년(합산 수출액 4,110억 원)에 육박하는 12년래 최대치이다. 지난 해 업체별 수출비중을 보면 태광이 82.5%, 성광벤드가 72.8%를 기록하여, 각각 전년대비 1.7%p, 6.2%p 상승하였으며, 특히 성광벤드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중동과 미국이 수출 증가세 견인

업체별 수출지역을 보면 태광은 중동 68%, 미국 28%, 아시아 2%, 유럽 1%, 아프리카 1%로 중동과 미국시장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수출지역인 중동지역 매출액이 1,487억 원으로 전년대비 56.0%나 급증하며 수출액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미국향 수출액은 608억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성광밴드의 지역별 수출비중은 중동 54.2%, 북미 38.4%, 남미 4.5%, 기타 2.9%를 차지해 중동과 북미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동비중은 2024년 31.9%에서 2025년 54.2%로 22.3%p 상승해 수출증가를 견인하였다.

국제유가 하향안정화 국면에도 불구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조선 등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국제유가의 실적 민감도는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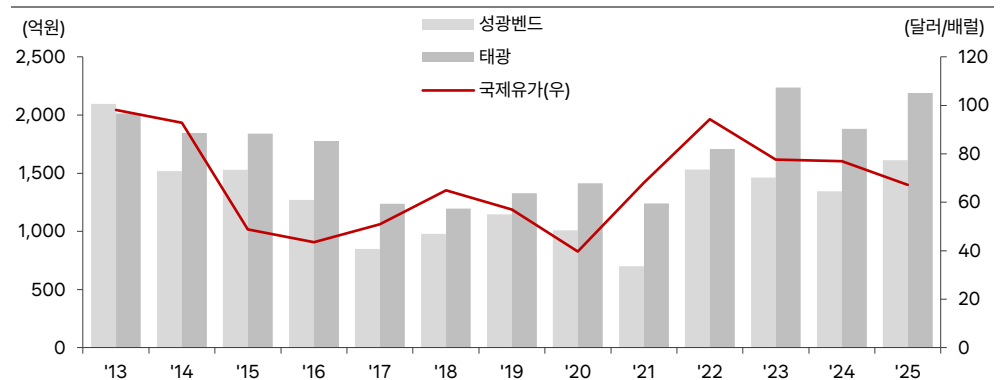
과거 국내 피팅업체들은 중동 산유국의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 실적이 동행하는 구조가 뚜렷했으나, 최근에는 2022년 이후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에너지가격 변동을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방 산업의 구조적 회복에 기인한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수출 터미널 및 인프라 투자 확대이다. 2022년 이후 러우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PNG)를 대체하기 위한 유럽의 LNG 수요 급증으로 북미지역의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에너지 패권 강화 정책과 LNG 수출 규제 완화 기조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결정(FID)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LNG 플랜트는 영하 16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을 견뎌야 하므로 일반 탄소강보다 단가가 높은 STS 및 Alloy 합금강 피팅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국면에서도 Q(수량)의 우려를 P(가격)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상쇄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특히 수출비중 확대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국면과 맞물려 국내 피팅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의 슈퍼 사이클 진입과 LNG 선박 발주 호황도 국제유가와와의 디커플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 국내 조선3사의 수주잔고를 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43조 원대에서 2021년 76조 원 → 2022년 111조 원 → 2023년 121조 원 → 2024년 및 2025년말 145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주잔고를 기록했던 2008년 140조 원 수준을 넘어 역사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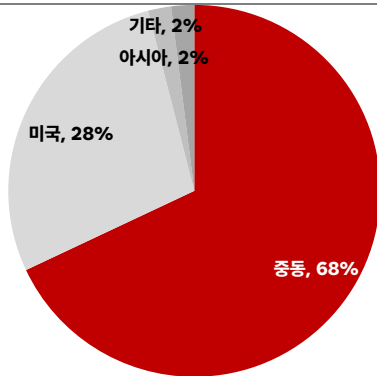
수주잔고 증가는 특히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LNG 운반선 및 LNG 추진선 발주가 지속된 결과이며, 이는 국제유가와와의 민감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LNG 관련 선박에 STS 등 고부가 피팅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수익성에도 유리한 환경이다.

국내 용접용 피팅업체 수출액 추이: 국제유가와 디커플링(De-coup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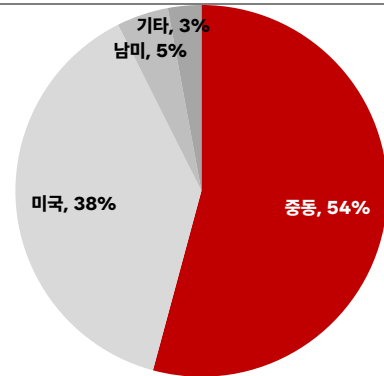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태광 2025년 지역별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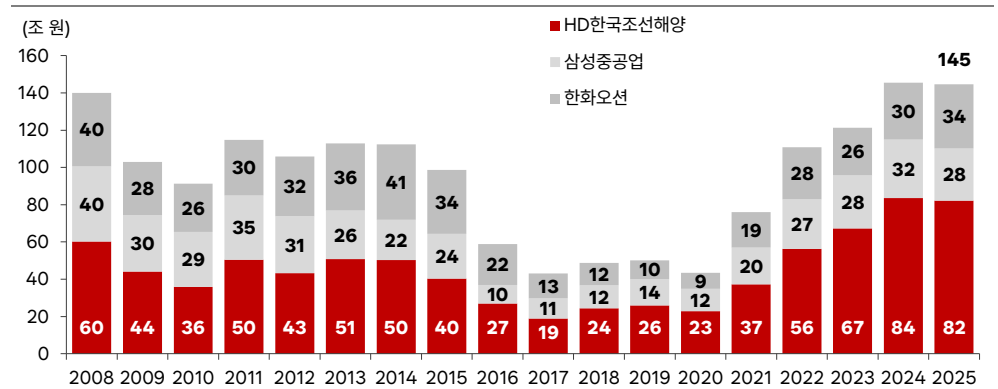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성광벤드 2025년 지역별 수출비중



자료: 성광벤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조선3사 수주잔고 추이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해외건설수주 동향: 플랜트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역 다변화

**2025년 해외건설수주액은
473억 달러로 27.5% 증가,
산업설비 수주비중은 74.6% 차지**

2025년 해외건설수주 시장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동사의 피팅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전방산업인 산업설비 부문에서 비약적인 질적 성장을 기록한 한해이다.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따르면 2025년 연간 해외건설수주액은 473억 달러로 전년대비 27.5% 증가했으며, 이중 산업설비 수주액은 35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45.2%나 급증하였다. 특히 전체에서 산업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6%에 달해, 과거 50~60%대에 머물던 수주 구조가 플랜트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 이는 용접용 피팅 수요가 집중되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별 수주비중은 국제유가와
민감도가 높은 중동 위주에서
친환경 에너지 다변화 정책으로
북미, 유럽으로 다변화 추세,
유럽 원전 최초 수주에 성공**

지역별 수주실적을 보면 전통적으로 중동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유럽과 북미가 새로운 핵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지역별 해외건설수주비중은 유럽 42.6%, 중동 25.1%, 북미 14.3%, 아시아 13.5%, 기타지역 4.3%를 차지하여 유럽지역이 중동 및 미주지역보다 높았다.

유럽지역 수주액은 202억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298%나 급증하였는데, 이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5·6호기) 건설사업(187억 달러) 수주에 기인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국내 원전 역사상 유럽시장 진출의 첫 성공사례이자, 항

후 테슬라 3·4호기 등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을 열어둔 전략적 요충지 확보라는 의미가 크다.

특히 원전 건설은 정유화학 플랜트나 조선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피팅 수요를 창출하는 만큼 국내 피팅산업에도 낙수효과가 클 전망이다. 원전에 투입되는 배관 자재는 고온·고압 및 방사능 노출 환경을 견뎌야 하므로 일반 탄소강보다 단가가 높은 STS 또는 Alloy 합금강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제품의 평균판매가(ASP) 상승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된다.

성광벤드와 태광 등 국내 업체들은 국내 고리원전 1호기부터 신한울 3·4호기까지 모든 국내 원전 건설에 참여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의 EPC 공급망에 양사가 핵심 기자재업체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본계약 체결 이후 실질적인 발주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할 전망이며, 기자재 발주는 공정 초기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발생해 향후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제공해 줄 전망이다.

2024년 사우디 Aramco 및 카타르 등 석유·가스 플랜트 대규모 발주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5년 중동 수주는 감소

전통적으로 해외건설수주액에서 최대비중을 차지한 중동지역은 2025년 수주액이 119억 달러로 전년(185억 달러) 대비 35.7% 감소했으며, 수주비중도 전년도 49.8%에서 25.1%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2024년 중동지역의 수주 호황에 따른 역기저효과에 기인한다. 2024년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를 보면 카타르 담수발전 프로젝트(28.4억 달러), 사우디 Aramco 파딜라 가스 증설 프로젝트 패키지 1 & 4(60.8억 달러) 및 패키지 2(12.2억 달러), 사우디 Aramco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25.4억 달러)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집중한 한해였다.

2025년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카타르에너지 LNG가 발주한 CO2 이송설비(13.7억 달러),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2GW 태양광 발전소(10.5억 달러), 토탈에너지가 발주한 바스라 담수 프로젝트(31.6억 달러), UAE 메탄올 프로젝트(17.1억 달러) 등이 있으며, 전년에 비하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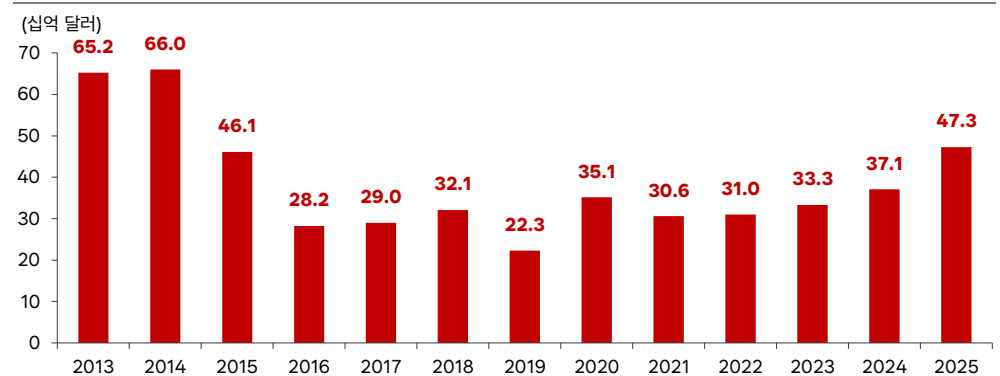
2025년 북미 해외건설수주액은 68억 달러로 전년대비 44.3% 성장하며 수주비중의 14.3% 차지

2025년 북미 해외건설수주액은 68억 달러로 전년대비 44.3% 성장하며 전체 수주비중의 14.3%를 차지했다.

특히 북미지역은 중동에 이어 동사의 두번째로 큰 수출지역으로 2025년 전체 수출비중의 2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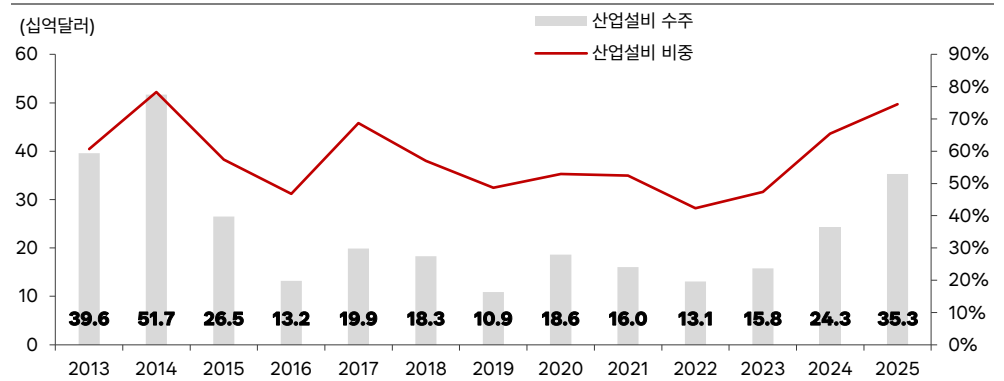
최근 4개년간 동사의 북미지역 수출액을 보면 2022년 314억 원에서 2023년 502억 원, 2024년 573억 원, 2025년 60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중동과 더불어 핵심 수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건설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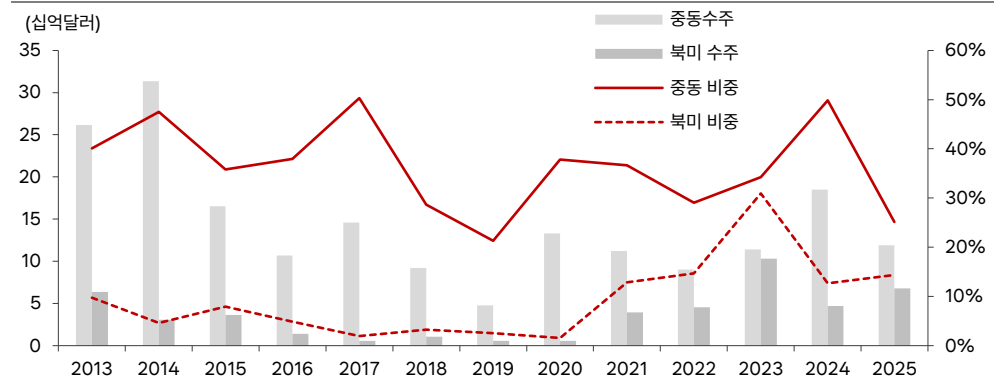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해외건설수주 중 산업설비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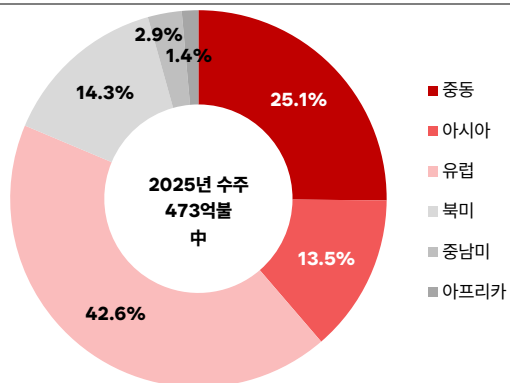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해외건설수주 중 중동 & 북미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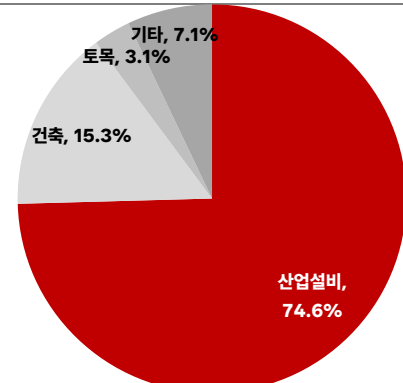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해외건설수주 비중(2025)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공종별 해외건설수주 비중(2025)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이란 전쟁 이후 중동발 배관용 피팅 특수 기대

이란-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손실규모는
최소 250억 달러 규모로 추산,
향후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한
대규모 파이프용 피팅 수요 촉발
전망

최근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미국간의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지역적 분쟁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전쟁으로 세계 원유 해상공급량의 약 20~25%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공급 충격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4일 이란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결정은 하루 약 1,500~2,000만 배럴의 원유와 막대한 LNG 운송을 차단하며 국제유가가 가스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물류 차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동지역의 원유 및 가스 핵심 생산 및 가공 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이에 따른 설비 파손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South Pars) 시설을 폭격하며 에너지 인프라를 군사적 목표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카타르의 라스 라판(Ras Laffan) 산단을 포함한 주변 산유국의 핵심 가스 및 정유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다.

노르웨이의 에너지 분야 컨설팅기관인 Rystad Energy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동전쟁의 인프라 손실 규모는 최소 2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수년간 지속될 대규모 재건 및 유지보수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재건 비용은 주로 엔지니어링과 건설 부문에 49%, 장비 및 소재 부문에 39%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 비용에는 핵심 기자재로서 파이프와 피팅 제품 수요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전쟁으로 파손된 파이프라인은 단순히 한 두 군데를 부분적으로 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 전체의 압력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특히 LNG 시설과 같은 극저온 환경이나 정유시설과 같은 고압 환경에서는 연결 부위의 용접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 동사와 같은 장기간 검증된 공급업체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Rystad Energy가 분석한 주요 피해 시설로는 카타르의 라스 라판(Ras Laffan), 바레인의 시트라(Sitra) 정유소, 이란의 사우스 파(South Pars), 사우디의 라스 타누라(Ras Tanura) 등이다.

카타르의 라스 라판은 전세계 LNG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LNG 산업단지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연간 약 1,280만 톤에 달하는 생산설비가 가동 중단되었으며, 카타르 정부는 LNG 장기공급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였다. 카타르의 생산설비 복구에는 최장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레인의 시트라 정유설비는 최근 70억 달러에 달하는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격되어 새로 가동된 증류장치가 파괴되며 불가항력이 선언되었으며, 재건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집중 포격을 받은 이란의 사우스 파(South Pars)는 가스처리 핵심설비의 파손으로 가스생산의 20%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하르그섬(Kharg) 터미널은 선적 항만 연결 배관에 대한 정밀 타격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석유화학 단지인 아살루예(Asaluyeh) 허브, 테헤란/알보르즈 등의 원유저장설비 등이 공습 피해를 입어 시설물이 손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사의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의 아람코가 소유한 세계 최대 정유설비인 라스 타누라(Ras Tanura)는 드론공격으로 정유탑 및 배관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며 일시 가동을 중단했다.

이란전쟁에 따른 중동 주요 에너지시설 피해 현황

Country	Disruption category	Facility	Asset type	Repair Intensity	Repair time
	Major	Ras Laffan	LNG + Refinery	●●●●●●●●	■●●●●●●●
	Major	South Pars (cluster)	Offshore gas field	●●●●●●●●	■●●●●●●●
	Major	Bahrain Sitra Refinery	Refinery	●●●●●●●●	■●●●●●●●
	Major	Pearl GTL	Downstream facility	●●●●●●●●	■●●●●●●●
	Major	Tehran Refinery	Refinery	●●●●●●●●	■●●●●●●●
	Major	Shah gas	Onshore gas field	●●●●●●●●	■●●●●●●●
	Major	Shahran Oil Depot	Downstream facility	●●●●●●●●	■●●●●●●●
	Major	Shahid Dolati Oil Depot	Downstream facility	●●●●●●●●	■●●●●●●●
	Major	Shahr-e Rey Oil Depot	Downstream facility	●●●●●●●●	■●●●●●●●
	Major	Lanaz Refinery	Refinery	●●●●●●●●	■●●●●●●●
	Major	Ruwais Refinery	Refinery	●●●●●●●●	■●●●●●●●
	Minor	Bab & Habshan	Producing field, gas processing	●●●●●●●●	■●●●●●●●
	Minor	Haifa refinery	Refinery	●●●●●●●●	■●●●●●●●
	Minor	Other infrastructure	Multiple	●●●●●●●●	■●●●●●●●

Disruption* category ● Major ● Moderate ● Minor

자료: Rystad Energy,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중동의 동사 수출의 절반 이상 차지, 중동 에너지 국영기업들은 대부분 동사의 주요 고객사로 장기적인 공급 레퍼런스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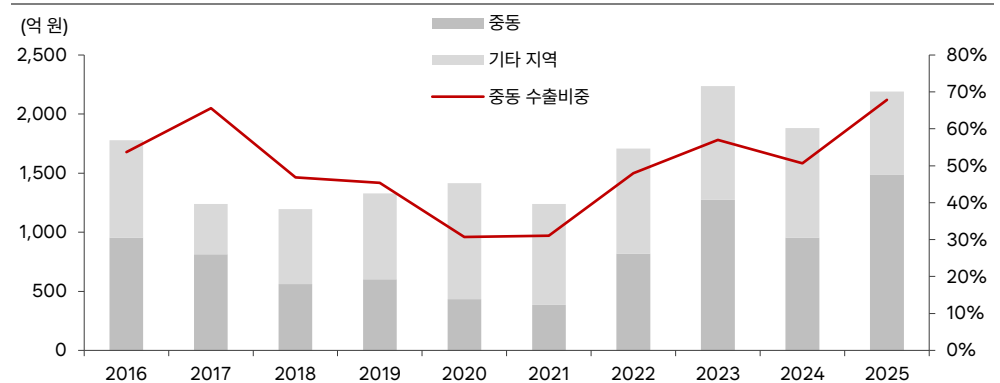
글로벌 용접용 피팅 부문의 최대기업인 동사에게는 전후 재건 수요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은 2025년 기준 동사 수출비중의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요 시장이며, 특히 사우디의 아람코(Aramco), UAE의 아드녹(ADNOC), 카타르의 카타르에너지(QE), 쿠웨이트의 KNPC, 바레인의 BAPCO, 오만 석유공사(PDO) 뿐만 아니라 이란석유공사(NIOC) 등 중동지역의 대부분의 국영 에너지기업들이 모두 동사의 주요 고객사로 등록되어 있다.

동사는 석유화학, 가스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필수 부품인 Elbow, Tee, Reducer 등 관이음쇠 분야 글로벌 최대기업으로 중동의 대규모 설비 파괴는 역설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설비 교체 및 재건 수요를 촉발할 전망이다.

특히, 카타르의 LNG 트레인의 경우에는 극저온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LNG 생산라인으로 동사의 STS 등 고부가 피팅 수요가 필수적이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최장 5년으로 예상되는 복구기간 동안 동사에게는 장기적으로 고부가 프로젝트의 공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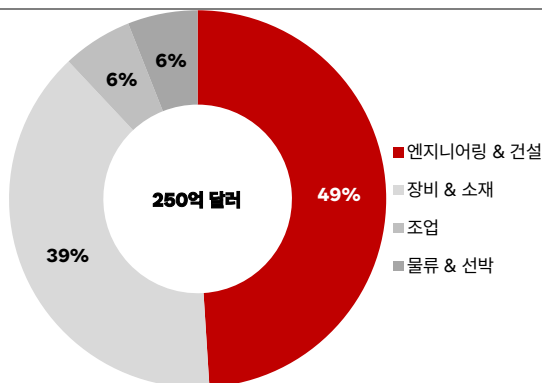
중동의 석유기업들은 극도로 엄격한 벤더 등록(Approval Vendor List, AVL) 절차를 운영한다. 아람코나 아드녹과 같은 중동기업의 벤더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기술력, 품질인증, 안전 기준 준수 등 혹독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한번 등록된 벤더는 해당 국가의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며, 이는 시장의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이미 대부분의 중동 에너지 국영기업의 AVL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공급 레퍼런스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산유국들은 기술력과 납기 대응력이 검증된 동사와 같은 기존 벤더에 긴급 수주를 맡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전망이다.

태광 별도 수출액 중 중동 수출비중 추이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란전쟁에 따른 중동 에너지 인프라 재건 수요 전망



자료: Rystad Energy,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태광의 중동지역 주요 고객사 현황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기업가치제고 계획 3대 세부 목표 달성율은 100%

2025년 기업가치제고 목표 달성:

- 1) PBR 1.4 배로 상승,
- 2) 주주환원을 30% 달성,
- 3) 현금배당 535원(200원 상회)

동사는 2024년 12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왔다.

회사가 설정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개년 중장기 목표는 1) PBR 1.0배 달성, 2)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을 30% 유지, 3) 주당 현금배당 200원 이상의 안정적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었다.

목표 1: PBR 1.0배 달성을 통한 자산 가치의 재평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가장 상징적인 지표인 PBR은 동사가 보유한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의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4년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당시 동사의 PBR은 0.8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시장 소통에 힘입어 동사의 PBR은 2025년 말 0.9배까지 상승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9,000억 원에 달해 2026년 추정 BPS대비 PBR은 1.4배를 기록하며 당초 설정한 1.0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태광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공장 설비 등 장부상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창출할 수익에 대한 시장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PER(주가수익비율) 역시 2024년말 10.1배에서 2026년 추정 EPS대비 PER 19.0배로 급등하며, 시장이 동사를 단순한 저평가 가치주가 아닌 성장과 환원을 겸비한 우량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 2: 당기순이익 대비 30.0% 주주환원

동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의 30%를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당기순이익 461억 원 중 총 138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하며 주주환원을 30.0%를 정확히 준수했다. 이는 2023년의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율이 7.6%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2025년 동사의 영업이익은 387억 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했으나, 영업 외 수지에서 금융수익(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처분이익 484억 원 계상)이 급증하며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전년대비 42.0% 급증한 655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5년 당기순이익을 감안하면 주주환원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197억 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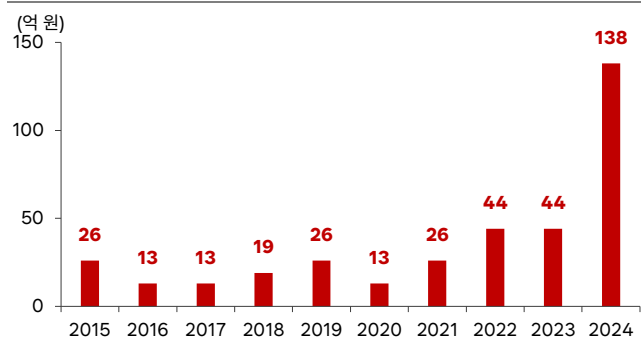
동사는 2025년 1월 30일 이사회결의를 거쳐 2월 6일 既취득 자사주 632,758주(2.39%) 소각을 실시하였다. 소각금액은 112억 원으로 자사주 소각 이후 발행주식수는 기존 2,650만 주에서 25,867,242주로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2025년 결산배당으로 주당 250원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배당금총액은 65억 원이다.

이로써 동사는 자사주 소각(112억 원)과 결산배당(65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77억 원의 주주환원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2025년 순이익대비 주주환원율이 27.0%로 2024~2026년 밸류업 계획의 주주환원 목표치 3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2025년 주주환원 목표치 30%(197억 원) 달성을 위해서는 잔여 20억 원을 자사주 매입 또는 중간배당으로 달성하면 되는 수준으로 중간배당 기준으로는 최소 주당 80원을 실시하면 무난히 달성가능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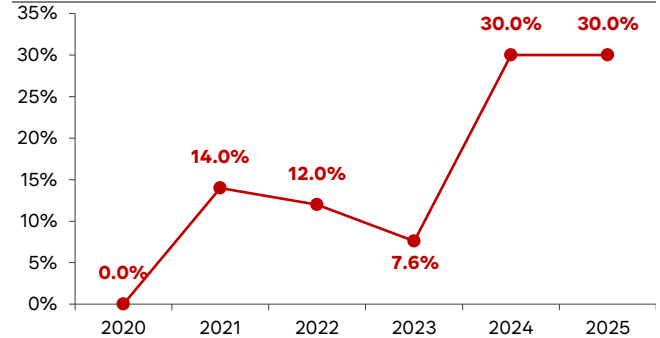
목표 3: 주당 현금배당 최소 200원 이상 유지 및 확대

최소 배당금 목표 설정은 하락장에서도 주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다. 동사는 주당 현금배당을 최소 200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실제 이행 수준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동사의 주당 배당금은 2023년 170원에서 2024년 중간배당 285원에 기말 결산배당 250원을 합쳐 총 535원으로 확대되어 목표치의 2.6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동사는 2024년에는 주주환원 목표 30%(138억 원)를 배당만으로 달성했으나, 2025년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자사주 소각(112억 원)과 기말 결산배당(주당 250원, 배당금액 65억 원)으로 목표치의 27%를 달성했으며, 주주환원 30% 목표 달성을 위한 잔여금액은 약 20억 원이다. 이는 동사가 중간배당으로 주당 80원 이상을 실시하면 무난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당리서치는 2025년 동사의 중간배당과 기말결산배당을 합친 총 배당금을 주당 35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기업가치 제고 목표 주당 배당금 200원을 1.7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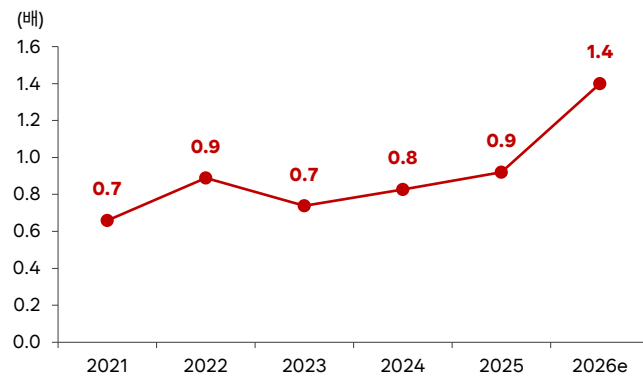
연도별 배당금액 추이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도별 주주환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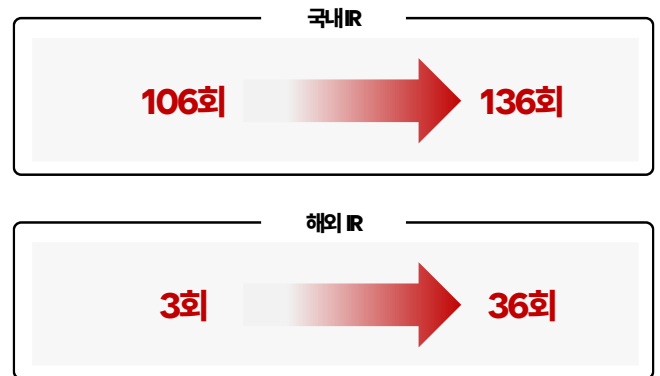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도별 PBR 배수 추이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장 소통 강화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7~2029 신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주주환원 목표 확대

2027~2029 기업가치제고 신규 목표로 주주환원을 45%로 상향

동사는 2024~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더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3개년간 적용될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주주환원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총 주주환원을 45%로 상향 조정

동사가 발표한 새로운 기업가치 제고 로드맵의 핵심은 당기순이익 대비 총 주주환원율 목표를 기존 30%에서 45% 이상으로 기존대비 15%p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의 주주환원율에 해당하며,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까지 주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선언이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에 더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하는 구조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자본 효율성을 높여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규모 현금을 사내에 유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환원함으로써 자본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당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자본 배분 모델을 채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사는 PBR 1.0배를 넘어 시장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고밸류에이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수익성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조화

주주환원 확대가 가능한 이유는 본업에서의 견고한 수익성과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동사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원가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주항공(로켓 발사대 인프라) 및 4차 산업 관련 신사업 부문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2027-2029년 계획에는 현금배당 수준을 전년 대비 유지하거나 확대 시행하겠다는 배당 정책의 안정성 확보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컴(Income)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사주 소각을 통한 캐피탈 게인(Capital Gain) 기회까지 제공하는 토탈 리턴(Total Return) 전략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성장 동력: 우주항공과 4차 산업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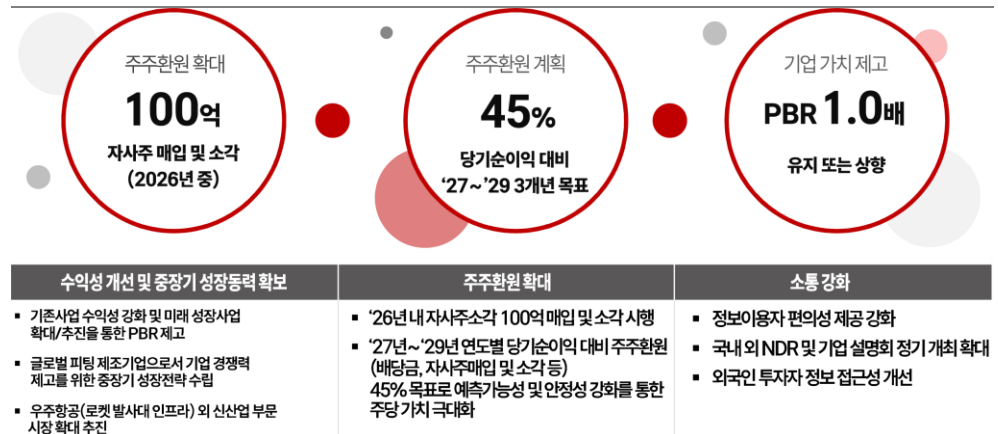
동사의 강화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펀더멘털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동사는 기존 석유화학 및 에너지 플랜트 시장을 넘어, 기술 집약적인 우주항공과 4차 산업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동사의 미래 먹거리 중 가장 눈에 띄는 산업은 우주항공 산업으로 동사는 로켓 발사대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이다. 로켓 발사대는 극저온의 액체 연료와 초고압의 가스를 다루는 초정밀 배관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동사가 보유한 첨단 금속소재 가공 기술과 초대형 피팅 제조 역량은 이러한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우주항공 인프라에 최적화되어 있다. 정부의 'K-우주' 전략과 민간 우주 개발 수요가 맞물리며 로켓 발사대 건설 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이미 검증된 피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켓 발사대용 특수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기존 플랜트 산업의 경기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시장에서 동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Re-rating)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서사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동사는 신사업으로 우주항공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4차 산업의 핵심 고정자산 투자 영역으로 제품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 공정이나 이차전지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초정밀 관이음쇠는 티타늄, 니켈 합금 등 특수 소재 활용 능력과 극한의 청정도를 유지하는 제조 공정이 요구된다. 동사는 기존 에너지 플랜트에서 쌓은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첨단 산업 인프라 시장에서 공급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는 매출처 다변화에 더해 실적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다.

2027~2029 기업가치 제고 추가 계획 발표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분석

**별도 본업의 성장으로 연결 기준
외형은 증가했으나,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9% 감소**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여 전년도 일시적 역성장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387억 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여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은 13.0%로 전년대비 1.9%p 하락하며 최근 4개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별도 기업과 종속기업으로 실적을 구분해 보면, 본업인 용접용 피팅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 기업 매출액은 2,656억 원으로 전년대비 14.0% 감소했으며, 별도 영업이익은 432억 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다.

별도 영업이익률은 16.2%로 전년대비 1.2%p 하락하며 최근 4개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별도 영업이익률을 보면 2022년 20.7%, 2023년 20.5%, 2024년 17.4%, 2025년 16.2%로 매년 하락세가 이어졌다.

별도 부문 내수 매출액은 465억 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가운데, 수출 매출액은 2,191억 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하였다. 별도 기준 수출비중은 82.5%로 전년대비 1.8%p 상승하였다.

지역별 수출현황을 보면 최대 수출지역인 중동 매출액은 1,487억 원으로 전년대비 56.0% 급증하며 전체 수출액 중 중동비중이 전년도 50.6%에서 67.9%까지 상승하였다. 중동의 뒤를 이어 북미 매출액은 608억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며 미국 수출비중은 27.7%를 차지하였다.

**별도 부문 영업이익률 하락은
고율의 대미 철강관세에 따라
판관비 중 수출제비용 급증에 기인**

별도 부문 매출 성장에도 수익성이 부진했던 주요 원인은 판매관리비의 급증에 기인한다. 별도 기준 매출원가율은 69.2%로 전년대비 2.9%p 하락했으나, 판매관리비는 2024년 245억 원에서 2025년 386억 원으로 141억 원 증가하며 판관비율이 14.5%로 전년대비 4.0%p나 급증하였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2025년 3월 對美 철강관세가 25%에서 6월 이후 50%로 고율관세가 적용되면서 판매관리비 중 수출제비용이 전년도 66억 원에서 2025년 217억 원으로 급등한데 기인한 것이다.

수출제비용을 분기별로 보면 2025년 1분기에는 25억 원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철강관세 상승분이 반영되기 시작한 2분기 44억 원, 3분기 63억 원, 4분기 85억 원으로 매분기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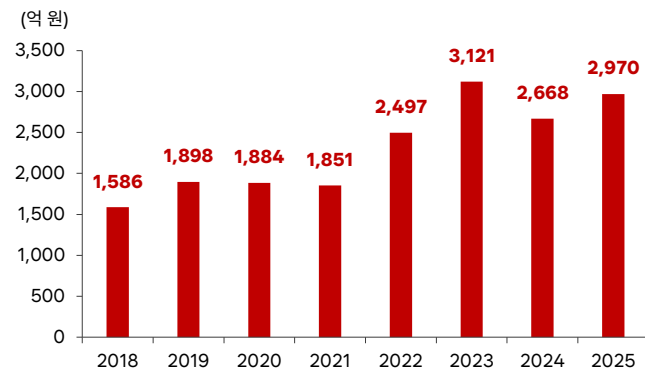
**HYTC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으로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며 연결 실적
부진에 영향**

연결 실적에서 별도 부문의 실적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자회사 에이치와이티씨의 영업적자 전환에 기인한다.

HYTC의 매출액은 301억 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전년(4억 원 흑자)대비 적자 전환하였다. HYTC는 2차전지 전극공정 및 조립공정에 필요한 설비의 모듈 및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2023년 이후 이어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국면)으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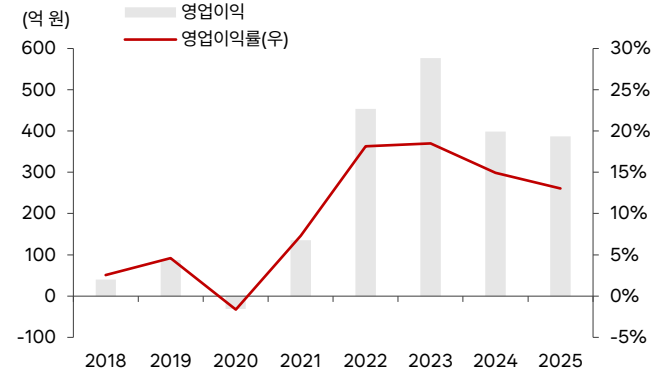
분기별 매출액은 1분기 66억 원, 2분기 61억 원으로 외형 정체를 보였으나, 3분기 82억 원, 4분기 92억 원으로 회복되며, 영업이익은 1~3분기 연속 적자에서 4분기 1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연결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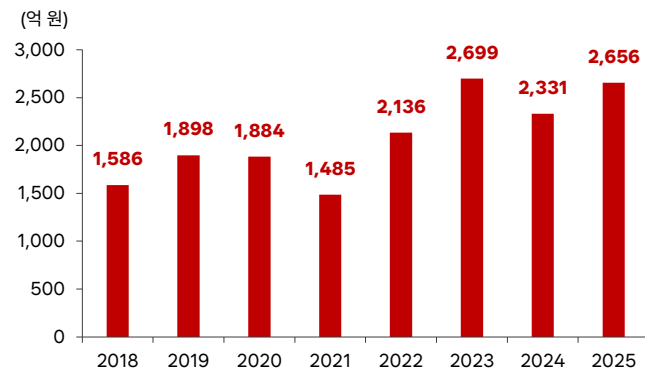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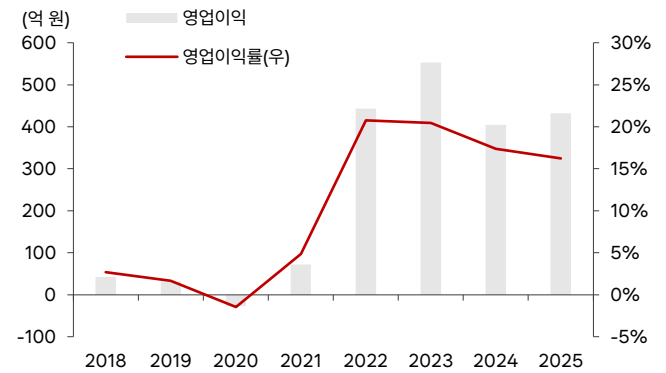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별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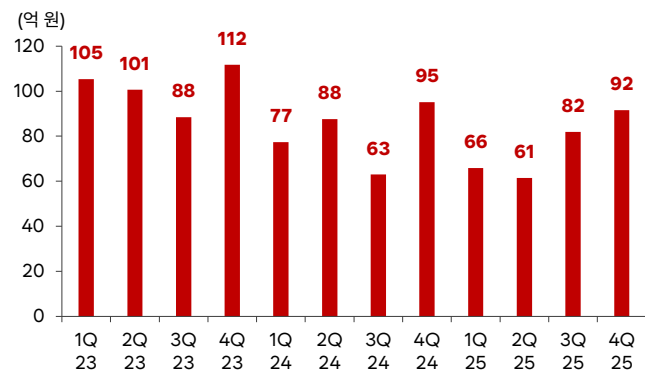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별도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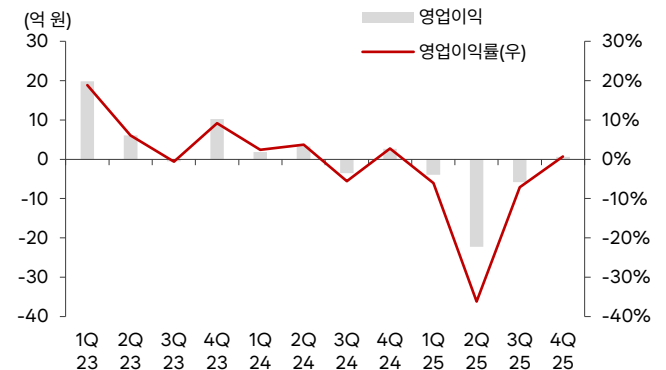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이치와이티씨 매출액 추이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이치와이티씨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역대 최대치 매출액
경신, 영업이익은 2023년 최대치
이후 재차 500억 원대 안착 예상

2026년 실적은 본업인 플랜트용 기자재(피팅 부문) 및 2차전지용 기자재(HYTC) 부문이 동반 성장할 전망이다.
 연결 매출액은 3,304억 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할 전망이며, 영업이익은 538억 원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500억 원대에 안착할 전망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은 4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해 증시 폭등으로 영업 외 수지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이 약 483억 원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급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이다.

수익성 회복의 견인차는 지난 해 별도 부문에서는 對美 수출관세 부담이 판관비 중 수출제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별도 부문 영업이익 성장을 제한하였으나, 2026년에는 제품 판매가격에 전가되며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며, 2차전지용 기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HYTC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외형 성장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접어 들어 올해 연간으로도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별도 매출액은 2,9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할 전망이며, 별도 영업이익은 531억 원으로 전년대비 23.0% 증가하여 별도 영업이익률은 18.0%로 전년대비 1.8%p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별도 실적에서는 수출 매출액이 2,47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며, 전체 연결 기준 외형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며,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LNG 프로젝트 물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수출비중은 전년도 28%에서 올해 35%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반면 중동 비중은 전년 68%에서 올해 57%로 하락하며 중동과 북미 수출이 92%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자회사 HYTC의 매출액은 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억 원으로 전년대비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2.0%로 과거대비로는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497	3,121	2,668	2,970	3,304
플랜트용 기자재(별도)	2,136	2,699	2,331	2,656	2,950
2차전지용 기자재(HYTC)	342	406	323	301	340
부동산 임대/기타	20	15	14	13	14
별도 수출액	1,709	2,236	1,882	2,191	2,478
중동	819	1,275	953	1,487	1,417
미주	314	502	573	608	866
기타	576	459	356	96	195
지역별 수출비중					
중동	47.9	57.0	50.6	67.9	57.2
미주	18.4	22.5	30.4	27.7	34.9
기타	33.7	20.5	18.9	4.4	7.9
영업이익	454	577	399	387	538
영업이익률	18.2	18.5	14.9	13.0	16.3
지배주주순이익	358	551	449	639	478
매출액증가율	35	25.0	-14.5	11.3	11.3
영업이익증가율	235	27.3	-30.9	-2.9	39.0
순이익증가율	98	54.0	-18.5	42.2	-23.5

자료: 태광,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주가는 PBR 1.4배로 리레이팅,
2024년말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
이후 주가는 113% 급등하며
기업가치 제고에 성공**

現 주가는 2026년 추정 실적 대비 PER 19.0배, PBR 1.4배로 2024년말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 당시의 밸류에이션 (PER 10.4배, PBR 0.8배) 대비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재평가(Re-rating)되었다.

주가는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2024년 12월 2일) 당시 주당 16,660원에서 현재 35,450원으로 112.8% 급등하여, 동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55.6%)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이처럼 동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동사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서 설정한 2024~2026년 3대 목표(PBR 1.0배, 주주환원율 30%, 현금배당 200원 이상)를 완벽하게 100% 달성한데다, 최근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2027~2029년 신규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환원율을 기존 30%에서 45%로 상향하는 등 주주환원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사의 전통적 수요 기반인 중동 발주가 2014년 이후 10여년래 최대치로 호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한 LNG 터미널 프로젝트 공사를 허가하면서 북미 수출이 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주가 강세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성광벤드는 PBR 1.6배로 동사에 비해
10% 이상 프리미엄 형성**

동사는 석유화학, LNG, 발전, 담수, 조선해양 분야에 쓰이는 배관용 관이음쇠(피팅) 시장에서 글로벌 최대 업체이며, 국내 시장에서는 성광벤드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만큼 성광벤드가 동사와 가장 유사한 Peer업체이다.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성광벤드는 2026년 컨센서스 BPS대비 PBR 1.6배에 거래되고 있어 동사에 비해 10% 이상 프리미엄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동사는 글로벌 용접용 피팅시장 1위업체로 성광벤드에 비해 수출규모(2025년 2,191억 원)가 크고, 수출비중도 82.5%로 성광벤드(2025년 별도 수출액 1,613억 원, 수출비중 72.8%) 보다 높다. 다만 성광벤드는 국내시장 1위업체로 2025년 내수 매출액은 602억 원으로 M/S 56%를 차지했으며, 동사의 내수 매출액은 465억 원으로 M/S 44%를 차지하였다. 내수와 수출을 합친 별도 기준 매출규모는 태광이 2,656억 원, 성광벤드가 2,215억 원으로 태광이 성광벤드보다 20% 정도 매출 규모가 크다. 2025년 수주규모를 봐도 태광은 2,798억 원으로 성광벤드의 1,837억 원보다 52.3%나 크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태광의 2025년 별도 영업이익은 432억 원으로 성광벤드의 400억 원보다 8.0% 컸으며, 당기 순이익은 태광이 707억 원으로 성광벤드의 326억 원 대비 2.2배나 컸다. 2025년 ROE는 태광이 10.7%로 성광벤드의 6.5%보다 4.2%p나 높았다.

2025년말 별도 기준 자본총계는 태광이 6,168억 원으로 성광벤드의 5,247억 원보다 17.5% 크다.

이처럼 동사가 경쟁사인 성광벤드 대비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 자본총계, 수주 규모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광벤드가 동사 대비 10% 이상 주가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1) 주요 수출지역 차이: 중동 vs 미국

**동사는 중동에 수출 집중,
성광벤드는 미국이 주요 수출지역**

동사는 전통적으로 최대 수요시장이 중동지역으로 2025년 기준 중동 매출액은 1,487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2,191억 원) 중에서 중동비중이 68%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매출이 증가세이나 북미 수출비중은 중동에 이어 28% 수준이다. 반면, 성광벤드는 2025년 기준 미국 수출액이 678억 원으로 수출액 중 미국비중이 49.2%로 거의

최대 수출 목표시장이 미국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액 중 미국비중은 65%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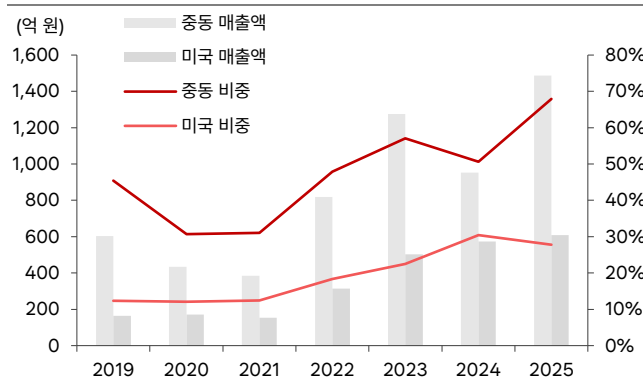
이처럼 태광과 성광벤드의 가장 뚜렷한 차별점은 바로 '북미'와 '중동'이라는 상이한 지역적 집중도에 있다.

성광벤드는 미국의 Shale 혁명 이후 본격화된 Midstream 투자와 LNG 수출 터미널 건설 붐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구조이다. 성광벤드가 집중하는 북미 프로젝트의 장점으로는 중동의 경우 유가와와의 민감도가 높아 유가가 하락하면 중동 국영 에너지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LNG 프로젝트는 글로벌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과 미국의 에너지 자립 목표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일시적인 유가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성장을 담보한다. 최근 대미 철강관세가 25%에서 50%까지 인상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나, 성광벤드는 관세 비용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고 있어 관세 부담도 완화되고 있다.

반면, 태광은 중동 매출비중이 절대적으로, 사우디 및 카타르 등 산유국의 국영기업(Aramco, 카타르에너지 등) 프로젝트에 강점이 있다. 태광은 최근 사우디의 자푸라(Jafura) 프로젝트, 아미랄(Amiral) 프로젝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성광벤드를 압도하는 수주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태광의 수주잔고와 매출 규모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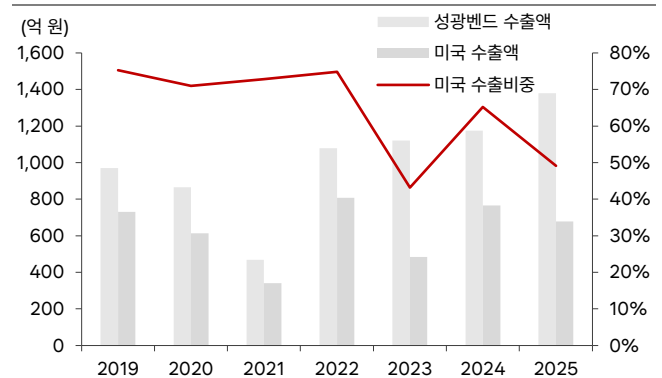
그러나 중동시장은 높은 유가 변동성,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류 리스크, 산유국의 재정상태에 따른 발주 지연 가능성, 글로벌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에 노출되어 있다. 태광의 대규모 수주 실적은 긍정적이나, 프로젝트 단위의 대형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크고, 마진의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밸류에이션의 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태광의 중동 & 미국 매출비중



자료: 태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성광벤드의 미국 수출비중



자료: 성광벤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제품 Mix 차이: 탄소강 vs 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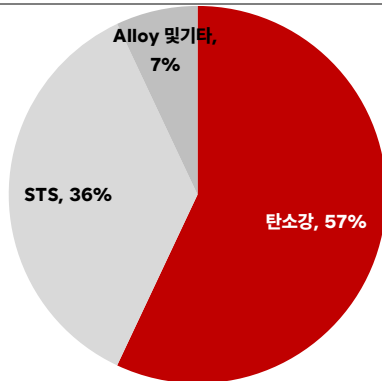
성광벤드가 동사에 비해 고부가

제품 Mix 보유

성광벤드와 태광은 주요 수출지역의 차이로 제품 믹스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사는 피팅 재질로 탄소강(Carbon Steel)과 더불어 STS, Alloy 합금강 등을 소재로 사용하는데 LNG 프로젝트 비중이 높을수록 STS나 특수강 비중이 높아지고, 반면 석유화학이나 일반 플랜트에는 탄소강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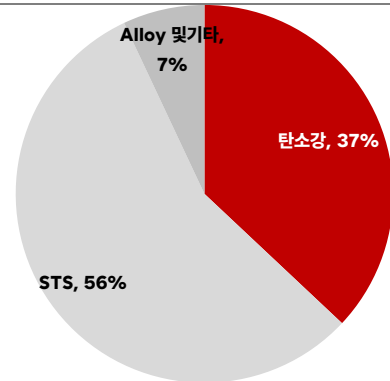
북미 LNG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성광벤드의 2025년 재질별 Mix를 보면 탄소강 비중은 37%인데 비해 STS 비중은 56%로 절반을 상회한다. 반면 태광은 2025년 탄소강 매출비중이 56.9%로 절반 이상인 반면, STS 소재 비중은 36%로 성광벤드에 비해 고부가 제품 Mix 비중이 낮다.

태광 소재별 매출비중(2025)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성광벤드 소재별 매출비중(2025)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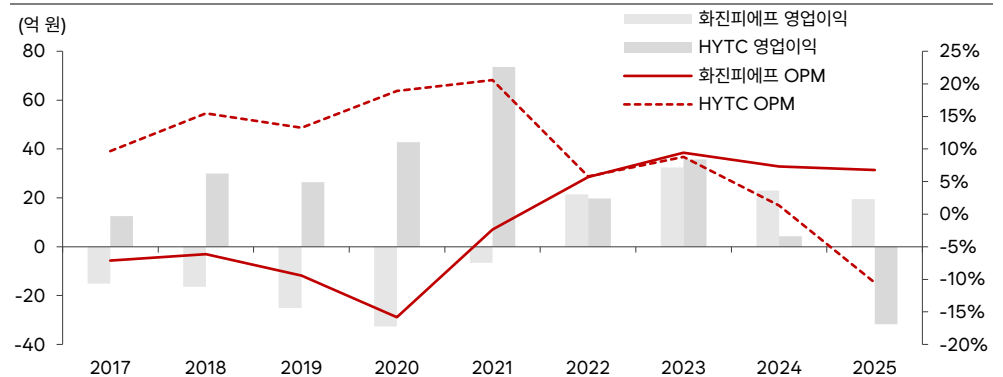
성광벤드는 피팅 부문 자회사까지 Pure Player이나, 태광은 2차전지 기자재업체인 HYTC의 실적 부진이 주가에 부담요인

3) 연결 자회사 기여 차이: Pure Player vs 2차전지 기자재

자회사 포트폴리오 차이에서도 양사의 기업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광벤드의 경우 자회사 화진피에프는 관아음쇠(피팅)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사와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진 Pure Player이다. 화진피에프는 2025년 매출액 287억 원, 당기순이익 18억 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연결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태광의 2차전지 기자재 자회사인 HYTC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기차 시장의 캐즘(단기 수요 둔화) 영향으로 2025년 영업적으로 전환하였다. HYTC는 2차전지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차전지업종의 2023년 이전 호황 당시에는 태광의 신성장 동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결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연결 실적에 부담요인이자, 주가에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진피에프 vs HYTC 영업이익 추이



자료: HYTC, 화진피에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밸류에이션의 결정적 차이는 자사주 소각

4)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차이

마지막으로 동사와 성광벤드가 주주환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기도 주가 밸류에이션 차이를 설명해준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얼마나 주주에게 환원하느냐가 기업가치평가의 최우선 순위로 부상했다. 성광벤드와 태광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자사주 소각'에서부터 갈렸다.

성광벤드는 2024년 7월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 후, 그 해 11월 22일 자사주 67.1만 주(100억 원)를 1차로 소각한 데 이어 2025년 5월 30일에는 201억 원 규모의 자사주 137만 주를 소각하여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성광벤드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태광에 비해 1년 이상 늦은 2026년 1월 12일 발표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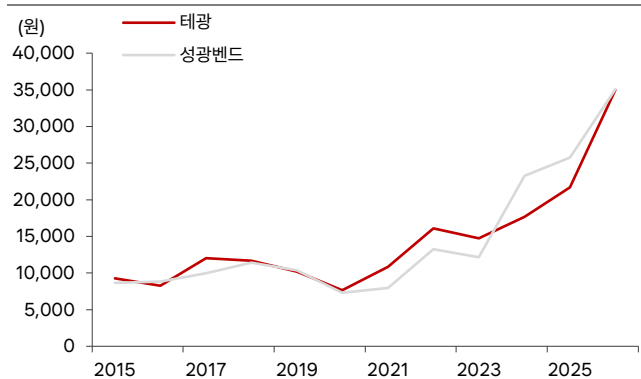
이에 비해 태광은 2024년 12월 성광벤드보다 1년 여 앞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가장 확실한 주주환원 방식인 자사주 소각은 2026년 1월 112억 원(63.2만 주) 실시하여 경쟁사인 성광벤드에 비해 늦었다.

양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면 PBR 1배, 주주환원율 30% 등을 목표로 제시해 유사한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성광벤드가 배당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인 자사주 소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업가치 상승에 효과가 더욱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사주 소각은 자본총계를 줄여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고, 분모인 주식 수를 감소시켜 EPS(주당순이익)를 높이는 효과를 준다. 이는 단순한 배당 지급보다 시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주주 친화적 시그널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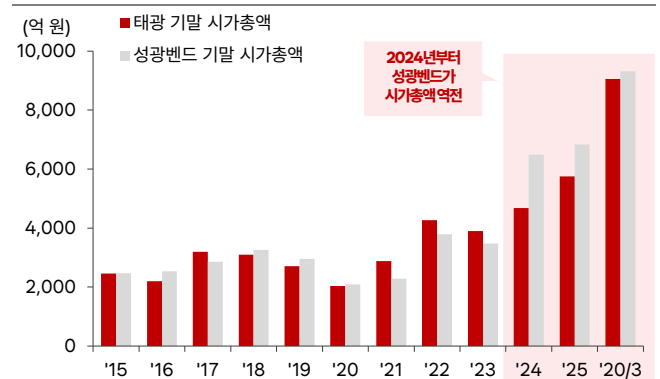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성광벤드가 태광보다 자본 규모는 작지만,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PBR 1.6배라는 동사에 비해 높은 PBR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성광벤드 & 태광 주가 추이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가총액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역대 최대치 매출액 경신, 북미 수출비중 확대와 자회사 턴어라운드, 2027~2029년 신규 밸류업 발표로 주주환원책 강화, 중동전쟁 이후 재건 수요 기대감은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

2026년은 동사의 연결 매출액이 본업과 자회사의 동반 성장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북미 LNG 프로젝트 호황에 따라 미국향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Mix가 개선될 전망이며, 2차전지 장비 부문 자회사인 HYTC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외형 증가폭보다 영업이익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사는 2024년말 발표한 1차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이어 최근 2027~2029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로 발표하면서 2026년 중 자사주 매입 및 소각 100억 원 실시, 주주환원율 45%로 기존대비 15%p 상향, PBR 1.0배 이상 유지 등의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제시하며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6년에는 실적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맞물리는데다, 이란전쟁 이후 주요 원유시설 및 가스설비의 재건 수요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중동 시장에서 최대 M/S를 확보하고 있는 동사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스크 요인

1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국 LNG 프로젝트의 상충 효과

대미 철강 관세 50% 적용으로
수출제비용 상승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북미 수출 비중이 증가세인 동사에게 직접적인 비용 상승 및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 보류되었던 17개 이상의 신규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의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세 부담 증가는 물량(Q)의 증가를 일부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 측은 미국 내 주요 고객사들에게 인상된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Pass-through)함으로써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으며, LNG 프로젝트 가속화에 따른 수주 확대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이스라엘-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및 수주 변동성

중동 전쟁 장기화 시에는 산유국
발주 지연 및 취소 리스크 상존

중동지역은 동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수요 시장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및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여 해상운임과 제조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사우디, 카타르 등 주요 발주처의 플랜트 건설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면 역설적으로 산유국의 자본력이 강화되어 향후 대규모 설비투자의 재원이 확충된다는 측면도 예상할 수 있다. 중동 정세의 향방에 따라 단기적 변동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일머니 기반의 투자 사이클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497	3,121	2,668	2,970	3,304
증가율(%)	34.9	25.0	-14.5	11.3	11.3
매출원가	1,754	2,226	1,946	2,110	2,247
매출원가율(%)	70.2	71.3	72.9	71.0	68.0
매출총이익	743	895	722	859	1,057
매출이익률(%)	29.7	28.7	27.1	28.9	32.0
판매관리비	289	318	323	472	519
판매비율(%)	11.6	10.2	12.1	15.9	15.7
EBITDA	542	670	501	509	669
EBITDA 이익률(%)	21.7	21.5	18.8	17.1	20.3
증가율(%)	139.9	23.5	-25.2	1.5	31.6
영업이익	454	577	399	387	538
영업이익률(%)	18.2	18.5	14.9	13.0	16.3
증가율(%)	235.2	27.3	-30.9	-2.9	39.0
영업외손익	14	129	180	475	107
금융수익	140	177	253	631	145
금융비용	128	55	75	71	50
기타영업외손익	3	7	1	-86	1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468	706	578	862	646
증가율(%)	112.3	51.0	-18.1	49.0	-25.1
법인세비용	100	125	117	207	152
계속사업이익	368	581	461	655	49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68	581	461	655	494
당기순이익률(%)	14.7	18.6	17.3	22.1	14.9
증가율(%)	98.3	58.0	-20.7	42.0	-24.6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58	551	449	639	478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63	543	592	194	319
당기순이익	368	581	461	655	494
유형자산 상각비	79	83	92	112	122
무형자산 상각비	10	10	10	9	9
외환손익	46	12	4	9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56	-137	101	-324	-314
기타	116	-6	-76	-267	8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26	-631	-458	10	-17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31	-54	42	588	-1
유형자산의 감소	2	1	1	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71	-202	-133	-144	-100
기타	-326	-376	-368	-435	-7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7	-75	-125	-167	-89
차입금의 증가(감소)	-96	-10	-11	-10	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360	0	0	0	0
배당금	-26	-44	-44	-138	-91
기타	-11	-21	-70	-19	0
기타현금흐름	-14	-1	3	-2	1
현금의증가(감소)	51	-164	12	35	59
기초현금	421	472	309	321	356
기말현금	472	309	321	356	415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3,127	3,035	3,088	4,152	4,664
현금성자산	472	309	321	356	415
단기투자자산	600	820	873	1,508	1,570
매출채권	685	607	598	694	772
재고자산	1,302	1,243	1,232	1,518	1,822
기타유동자산	67	57	65	76	84
비유동자산	2,813	3,228	3,515	3,256	3,226
유형자산	1,637	1,774	1,832	1,886	1,863
무형자산	418	409	402	319	311
투자자산	362	622	900	655	656
기타비유동자산	396	423	381	396	396
자산총계	5,940	6,263	6,603	7,408	7,889
유동부채	525	340	345	527	587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206	82	109	125	139
기타유동부채	319	258	236	402	448
비유동부채	173	169	163	185	203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73	169	163	185	203
부채총계	698	509	509	712	790
지배주주지분	4,801	5,288	5,660	6,246	6,633
자본금	133	133	133	133	133
자본잉여금	443	443	443	273	273
자본조정 등	-113	-113	-121	-121	-11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5	-18	-14	-12	-12
이익잉여금	4,353	4,844	5,220	5,974	6,358
자본총계	5,242	5,754	6,095	6,696	7,099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1.9	7.1	10.4	9.0	19.0
P/B(배)	0.9	0.7	0.8	0.9	1.4
P/S(배)	1.7	1.3	1.8	1.9	2.7
EV/EBITDA(배)	6.7	4.9	7.9	8.6	11.3
배당수익률(%)	1.1	1.2	1.4	2.5	1.0
EPS(원)	1,350	2,078	1,695	2,410	1,844
BPS(원)	18,117	19,954	21,360	23,569	25,644
SPS(원)	9,424	11,776	10,068	11,206	12,742
DPS(원)	170	170	250	535	350
수익성(%)					
ROE	7.8	10.9	8.2	10.7	7.4
ROA	6.7	9.5	7.2	9.4	6.5
ROIC	10.0	12.9	8.4	9.4	10.3
안정성(%)					
유동비율	595.9	892.2	895.1	787.7	795.1
부채비율	13.3	8.8	8.3	10.6	11.1
순차입금비율	-20.0	-19.1	-19.1	-27.4	-27.5
이자보상배율	70.5	75.7	66.3	64.7	81.2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5	0.4	0.4	0.4
매출채권회전율	4.1	4.8	4.4	4.6	4.5
재고자산회전율	2.0	2.5	2.2	2.2	2.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태광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4.02	태광-밸류업의 정석,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45%의 완벽한 하모니
2025.02.10	태광-중동과 북미의 LNGPJ 확대로 수혜 장기화 전망
2024.01.18	태광-십여 년 만에 호황 국면인 세계 1위 산업용 피팅업체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